

〈제 640호〉

# -주간- 광주 경영계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 광주신세계

### ◆ ESG 경영활동 강화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이동훈)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대를 위해 기존에 진행하던 사회 공헌활동에서 한발 더 나아가 환경·사회·지배구조 전 분야로 경영 활동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신세계그룹 상장사 7곳의 ESG 등급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만큼 광주신세계 역시 지난해 받은 B+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힘을 계획으로, 신세계그룹과 함께 '그린 신세계'라는 대주제 아래

네 가지 친환경 경영 추진전략 및 목표를 설정했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친환경, 사회공헌, 상생, 투명경영 등을 더욱 발전시키고 체계화하기 위해 'ESG 위원회'를 만들어 활동에 나섰다"며 "그중에서도 최근 주목받고 있는 환경 부분을 강화해 나가면서 지역민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환경의식이 녹아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광주은행

### ◆ 수해복구 긴급지원 '사랑꾸러미' 구호박스 전달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은 지난 15일 전남도청에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송중욱 광주은행장, 허정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긴급구호박스 '사랑꾸러미' 1,000개를 전달했다.

기록적인 폭우로 전남 곳곳에서 침수피해와 하천 범람 등이 일어나고, 특히 해남·강진·장흥·진도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성이 논의되는 등 인명과

재산피해가 속출하며 역대급 수해가 발생했다.

이에 송중욱 광주은행장과 임직원들은 지역 수재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마음을 담아 즉석식품과 생수, 위생용품 등 총 17종으로 구성된 긴급구호박스 '사랑꾸러미' 1,000상자를 직접 제작하는 봉사활동을 자체적으로 진행했으며, 이는 전라남도를 통해 전남지역 수재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경총 입장

어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5.04% 인상된 시급 9,16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어떻게든 버텨내고 있는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과 다름없는 무책임한 결정이다.

경영계는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처절한 외침을 외면한 채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 그리고 5.04%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법에 예시된 결정요인과 지불능력 등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결코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금번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 근로자의 약 83%가 종사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치명적인 추가 부담을 초래할 것이다. 특히 지금도 현상 유지조차 어려운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을 한계상황으로 내몰 것이 자명하다. 많은 취약계층 근로자들 역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상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00만명이 넘는 청년들이 잠재적 실업상태에 놓인 작금의 고용위기 상황에서 이루어진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대해 경영계는 다시 한번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는 이로 인해 초래될 국민경제의 부작용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2021. 07. 13.

**광주경영자총협회**



## II. 광주경충 소식

### 〈광주경충 회원 CEO, 광주글로벌모터스 방문〉



본회 김봉길 회장을 비롯한 회원CEO 38명은 지난 13일 광주글로벌모터스 초청으로 공장 견학을 했다. 이날 일정은 광주글로벌모터스 박광태 사장의 환영인사에 이어 공장현황 브리핑과 최첨단 차체 및 조립공장 투어 순으로 진행됐다.

김봉길 회장은 방문소감 인사말을 통해“많은 우려와 난관 속에서도 짧은 시간에 공장을 건설하고 양산체제를 앞두고 있어 감개무량 하다”면서“23년만에 국내완성차 업체로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설립된 만큼 노사상생과 일자리창출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산자동차 애용과 홍보에 경충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광주청년일경험드림 10기 비대면 ‘드림만남의 날’ 행사〉



본회는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광주광역시청 시민숲에서 개최된 10기 광주청년일경험드림 비대면 ‘드림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해 기업형 참여자 온라인 화상면접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997명의 광주 청년들이 온라인 화상면접으로 기업형을 비롯한 5개 유형의 참여기업 탐색 및 상담을 진행하였고, 그 중에서 425명이 기업형 온라인 화상면접에 참여했다. 또한 온라인 화상면접자 중 기업형을 1지망으로 신청한 인원은 168명, 2지망으로는 192명이 신청했다.

최종 선정된 참여청년들은 오는 8월 1일 공통교육을 시작으로 12월 31일 까지 5개월 동안 참여기업에서 일경험을 진행하게 된다.



II. 광주경충 소식

〈광주노사민정협의회 제4차 운영협의회〉



본회 광주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4일 제4차 운영 협의회를 개최했다.

운영협의회는 노사민정 개별주체간의 협조체계 구축과 지역특성에 맞는 의제를 발굴하여 노사협력, 일자리 창출지원, 파트너십 구축 등 구체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협의체로, 이날 운영협의회에서는 홍보 사업 및 토론회 개최 계획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장년센터 제24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운영〉



본회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는 지난 15일 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9층 특강실에서 제24회 생애 경력설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구직자에게 일 중심의 경력설계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금번 참여한 인원 26명 모두 프로그램을 수료했다.

사무국 일지(7.12 ~ 7.13)

7.12 (월)	● 광주청년일경험드림-기업형 드림청년 비대면 면접(~16)	7.15 (목)	● 중장년센터 제24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운영 ● 노사갈등 조정 전문가 교육(~16)
7.13 (화)	●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 견학 ● 중기청 여성기업 심사		
7.14 (수)	● 중장년센터 전직지원 상담 ● 제4차 노사민정 운영협의회의	7.16 (금)	● 제1526회 금요조찬포럼



### 〈제1526회 금요조찬포럼〉

**강사: 박진수(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주제: 알고리즘에 의한 의사결정**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김봉길)는 7월16일 광주과학기술진흥원 연회장에서 박진수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를 초청 <알고리즘에 의한 의사결정>이란 주제로 제1526회 금요조찬포럼을 개최했다.

AI처럼 이렇게 빨리 바뀌는 분야는 없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의사결정인데 카카오 등 모든 게 AI 기반에 의한 알고리즘이다. 재판도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공정하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과거에는 사람이 명령하면 기계가 따르는 맨머신시스템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스스로 업데이트 하고 스스로 분석하고 의사결정 하는 단계에 있다. 우리는 과거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환경에 있다.

AI 역사는 생각보다 상당히 오래 됐으며, 2010년대 이후는 인공지능망의 3차 붐이 일고 있다. 합성곱 신경망은 이미지 데이터를 처리할 때 흔히 사용되는 신경망 모델인데 최근에는 이미지 분석 뿐만 아니라 영상 및 음성 데이터 분석, 추천시스템 및 텍스트 데이터 분석에도 활용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사건과 관련한 로봇이 비용을 5분의 1로 줄이고 오류율도 0.02퍼센트로 낮았는데다 학습과 수정을 통해 정확도와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어 인공지능 변호사, 인공지능 판사, 인공지능 면접관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과 프라이버시 등 페이스북 소송이 발생하고 있다. 안면 인식 알고리즘의 실수로 엉뚱한 사람을 범죄자로 지정해 체포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연령별 미인 대회에서도 로봇이 심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40대에서 백인이 많이 나와 문제가 있다는 경우도 있었다. 또 흑인이 전자기기를 들고 있는 경우와 백인이 전자기기를 들고 있는 경우 전자는 총으로 인식하고 후자는 전자기기로 인식하는 오류도 있었다. 이처럼 AI가 중립적이라는 믿음에는 상당한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그래서 요즘에 연구하는 분야가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XAI)이다. 즉 왜 그것을 그렇게 판단 했는가라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러분, 넷플릭스에서 다큐멘터리인 제프 올롭스키 감독의 ‘소셜딜레마’를 꼭 보시길 바란다.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나를 어떻게 세뇌시키고 나를 조작시키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알고리즘 맹신에서 벗어나야 한다.





## 1. 노사 동향

#### ■ 2022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경영계 입장

-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총 3개 경제단체는 『2022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통해 기업현장의 어려운 경영실태를 반영해 동결해야 한다고 호소하였음.
-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68.2%는 현재 경영 상황이 코로나 이전보다 나빠졌으며, 40.2%는 정상적인 임금 지급조차 어려운 실정임.
- 특히 "아직도 많은 자영업자들은 빚으로 빚을 갚아 버티고 있는 상황으로,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단기간 내 여건 개선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하였음.
- 올해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월급여(실근로기준)로는 152만원이나, 실제 기업이 부담하는 인건비는 주휴수당에 퇴직금, 4대 보험료 등을 포함하면 이보다 33%가 더 많은 227만원 수준임.
-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이와 연동된 33%의 추가 인건비도 함께 늘어나게 된다"면서 "현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인상이 거듭돼 결국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하였음.
- 경총 조사에 따르면 현재 전체 근로자의 15.6%인 319만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으로 인한 코로나 충격으로 지난해에 11년 만에 처음 중소기업 일자리 30만개가 사라졌음.

####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 1)을 앞두고 고용부는 조직개편 시행

- 고용부는 7. 13 산업안전보건본부(권기섭 본부장) 출범식을 개최



### Ⅲ. 노사 및 법제동향

- 금번 조직개편으로 5개과가 신설되고 본부 인력 82명이 증원

※ 신설과명 :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산재예방지원과, 건설산재예방정책과, 중대산업 재해감독과, 직업건강증진팀

- 고용부는 확대된 조직과 인력으로 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건설현장에 대한 밀착 관리와 사업장별 안전보건체계 지원과 사업장에 대한 감독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수사체계를 구축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대비할 예정

- 또한, 고용부는 이달 셋째 주부터 격주로 ‘현장 점검의 날’을 운영해 전국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7월 현장 점검은 7. 14, 28 양일간 진행해 점검 결과 안전조치 의무가 미비한 사업장은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실시할 방침

※ 8월부터 이뤄지는 점검에서는 날짜를 알리지 않고 불시에 시행할 계획